



관중석 연일 만원 24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캐피탈 2012 광주 월드리그 국제남자 배구대회 미국과 한국 경기. 세계 정상급 플레이에 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중들이 열광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제배구 열기 ... 광주는 뜨거웠다

KIA '삭발투혼'

삼성과 12회 무승부 뒤 일제히 ... 분위기 쇄신

광주일보 주관 '2012 월드리그' 대륙간 라운드

한국, 프랑스·이탈리아·미국 벽 못넘어 아쉬움

광주가 배구 열기로 뜨겁게 물들었다. 2012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렸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주최하고 대한배구협회, 광주시배구협회, 광주일보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내달 4일 시작되는 결선을 앞두고 치러진 대륙간 라운드 3주차 경기로 한국을 비롯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4개국 선수단은 수준높은 플레이를 선보이며 3

일 연속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광주 배구팬들을 열광시켰다. 광구팬들은 모처럼 펼쳐진 배구 열전에 파도타기 응원까지 선보이며 대표팀에 힘을 실어줬지만 한국은 파워와 높이싸움에서 밀리며 안방에서 승리를 쟁기는데는 실패했다.

한국은 22일 프랑스와의 광주 첫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21-25, 25-23, 16-15, 15-25)으로 패한 뒤, 23일 이탈리아와의 2차전에서 폴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2-3(15-25, 22-25, 25-21, 25-13, 22-15)으로 아쉬움을 삼켰다. 24일 열린 3차전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세트스코어 0-3(20-25, 18-25, 18-25) 패를 기록하면서 1승8패(승점 6), C조 최하위로 3주차 일정을 마무리 했다. 미국의 벽은 높았다.

1세트 초반 접전이 벌어졌지만 미국의 블로킹 벽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한국의 공세가 무너졌다. 최홍석의 서브 범실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박철우가 연속 3득점을 성공시키며 분전했지만 미국 프리디에게 마지막 포인트를 내주면서 1세트가 20-25로 끝났다.

2세트 초반 리드를 내세웠던 한국은 하경민의 블로킹으로 6-6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미국의 높이에 막히면서 고전했다.

18-25로 2세트를 마무리한 한국은 3세트 초반 3-1로 앞서나가기도 했지만 미국의 매서운 서브에 역전을 허용했다. 최홍석 대신 송명근을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미국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세트도 18-25로 끝나면서 한국은 홈에서 3연패를 기록했다.

2차전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폴세트까지 가는 명승부를 연출했던 박철우와 전광인이 미국전에서도 25점을 합작하면서 맹활약했지만 한국 프로무대에서 뛰었던 앤더슨(13점)과 프리디(12점)가 팀 승리에 앞장서며 미국의 선두 자리를 지켰다.

미국은 3주차 경기에서 3연승을 달리며 7승3패(승점 20)로 C조 선두를 유지했다. 프랑스는 광주에서 2승을 더하며 6승3패로 2위, 이탈리아는 1승을 추가하며 4승5패가 돼 3위다.

한편 한국은 미국으로 무대를 옮겨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미국과 4주차 첫 경기를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머리에 범초를 해놨어."

KIA는 지난 22일 길고 길었던 원정길에서 3승2무6패를 기록하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삼성과의 대결에서 12회 0-0 무승부를 비롯해 1무2패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안방마님 김상훈은 선수단에 '삭발령'을 내렸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홈에서 열리는 SK와의 주말 3연전을 치르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보자는 의미에서였다.

선수단의 삭발결의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대구 원정을 끝내고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삭발을 감행한 이도 있었고, 23일 훈련에 앞서 오전 일찍 미용실을 다녀온 이들도 있었다.

보여주기 위한 단발이 아닌 머리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진짜 삭발이었다. 김상훈, 최희섭, 이범호 등 만형들이 머리를 밀다시피 등장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머리를 자른 선수들은 다시 미용실로 보내지기도 했다.

삼성과 한화에도 고참급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삭발 릴레이가 있었지만 KIA 선수단은 하룻밤 사이에 집단으로 삭발을 하고 등

장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선수들의 대변화에 외국인 투수 앤서니의 눈도 휘둥그레졌다. 달라진 동료들을 보고 "아무도 내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 자네에 나도 자르겠다"고 밝힌 앤서니는 다음날 약속대로 삭발 행렬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신입 호랑이 조영훈도 팀 합류와 함께 삭발을 감행했다.

23일 투수 김희철과 삼성에서 마트레이드된 내야수 조영훈은 "선수들이 머리로 짧게 자르고 해보자하는 분위기가서 좋은 것 같다"며 새 팀에서의 첫 경기가 끝난 후 머리를 밀며 심기일전했다.

재활군에서 벗어나 선수단 동행을 시작한 에이스 윤석민도 삭발 머리로 선수단과 함께 했다. 삭발과 함께 떠난 이도 있다. 내야수 김주형과 포수 한성구는 삭발을 한날 엔트리가 탈소되면서 삭발 투혼을 다음으로 미뤘다.

외국인 선수까지 삭발 행렬에 가세하며 의기투합했지만 KIA는 SK와의 첫 경기를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수들의 삭발 결의와 함께 바다로 추락했던 덕아웃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Hole in one and Dynasty Zon EVENT

기간 | 2012년 6월부터 ~ 종료시 까지
내용 | 지경을 출신원 및 다이내스티즌 성공시 혜택
대상 | 주중 내장팀에 한함

Hole in one

임페리얼 7번홀 ● 혜택
마게스티 12번홀 팀 전원 그린피 면제
팰리스 20번홀 (개별소비세, 카트비 별도)

Dynasty Zon

팰리스 27번홀 ● 혜택
팀 전원 300cc 생맥주 제공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호남 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사건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